

# 경북, 생성형 AI 인재 키워 가상융합 산업 거점 굳힌다

과기정통부 인력양성 공모 선정 가상융합혁신센터와 연계 추진 제조업 중심 산업 고도화 기대 XR·VFX 콘텐츠 제작교육 운영 기업 프로젝트·취창업 지원 확대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생성형 AI 기반 가상융합 콘텐츠 제작 전문 인력 양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가상융합 산업 거점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경북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운영 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인력양성 사업에도 잇달아 선정되면서 가상융합 산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게 됐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를 포함한 총 10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인프라와 연계해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생성형 AI 기반 가상융합 콘텐츠 제작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지역 산업 특

성에 맞춘 생성형 AI 기반 가상융합 콘텐츠 제작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생성형 AI 기반 단계별 교육과정 운영 ▲지역 기업 연계 프로젝트 ▲수료생 대상 취·창업 프로그램 지원 ▲교육 성과 확산 및 후속 사업 연계 등으로 추진된다. 교육과정은 초보자 대상 기초 교육과 경북 주력 산업인 반도체·방산, 기계·정밀부품 분야와 연계한 심화 교육으로 구

성된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XR과 VFX 등 가상융합 콘텐츠 제작 이론과 실습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또 지역 기업과 연계해 제품 홍보와 공정 시각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현장 밀착형 프로젝트를 운영해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구미 동북권 메타버스허브와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문경 버추얼e스튜디오와 연계한 '경북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를 교육 실습장으로

활용한다. 혁신센터는 3D·VR·AR 등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제품 시각화와 제품 홍보, 교육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 교육을 넘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텍스처스튜디오 등 VFX 전문기업이 참여하는 전문가 멘토링과 기업 맞춤형 프로젝트, 채용설명회, 1대1 면접 등 취·창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양희경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혁신센터 인프라와 생성형 AI 인재양성, 민관협력체계가 결합해 경북민의 가상융합 생태계가 구축됐다"며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을 고부가가치 디지털 콘텐츠 산업으로 전환해 경북이 AI와 가상융합을 선도하는 디지털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영주시 영주일품쌀, 2년 연속 품질 인정

영주시 대표 쌀 브랜드인 '영주일품쌀'이 경상북도 우수 브랜드 평가에서 다시 한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시는 영주연합농협 미국종합처리장의 대표 브랜드인 영주일품쌀이 '2026년 경북 6대 우수브랜드 쌀'에 2년 연속 선정됐다. 경북 6대 우수브랜드 쌀 평가는 도내 생산 쌀 가운데 단일 브랜드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영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문 평가기관은 품위와 품질, 품종 혼합 비율 등 여러 항목을 종합 심사해 우수 브랜드를 선정한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 울진군 NFC 주소판으로 재난대응 개선

울진군은 생활안전 강화와 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해 관내 주요 시설물에 NFC 기능을 적용한 사물주소판 설치를 확대했다. 군은 둔치주차장과 대피시설 등 250곳에 새 주소판을 설치해 군민과 방문객의 위치 확인 편의를 높였다. 이번 사업은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기관이 현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주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설치 대상에는 버스정류장과 인명구조함을 비롯해 지진옥외대피장소와 지진해일급대피장소 등이 포함됐다. 새로 도입된 사물주소판은 NFC 기능을 탑재하여, 스마트폰을 주소판 가까이 가져가면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위치 정보와 시설 안내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 경북, 울릉도 응급의료 강화사업 효과

울릉 찾은 30대 응급환자 신속 대처 파견 신경과 전문의가 긴급 처치



울릉 응급의료.

경북도의 '울릉군 응급의료 강화 지원 사업'이 효과를 내고 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울릉도를 방문한 30대 여성이 지난 13일 새벽 두통과 오한, 근육통, 어지러움 증세가 지속돼 같은 날 오전 6시께 울릉군보건의료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이곳에는 대구파티마병원 소속 신경과 전문의가 파견 근무 중이었다. 진찰 결과 급성 세균성 수막염 및 뇌염 가능성이 의심되는 긴급한 상황으로 의료진은 즉시 응급처치를 한 뒤 환자 거주지인 울산지역 삼강병원과 협의해 소방헬기로 환자를 이 병원으로 이송했고 환자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울릉군보건의료원은 그동안 울릉군민(9000여명)과 관광객(연간 41만여명)의 건강을 책임지는 울릉의 유일한 의료기관이지만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특히 응급의료 공백 우려가 컸다. 경북도는 2024년 말부터 응급실 의료

인력 확보, 대구·경북 종합병원 전문의 파견진료, 응급의료 장비 보강, 의료인력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고, 8개 협력병원 9개 진료과 전문의 31명이 파견진료에 참여해 총 1593건의 진료를 했다. 이 결과 중증환자 헬기 육지 후송 건수는 최근 3년 연평균 72.3건에서 53건으로 19건 줄어 '응급의료 여건 개선' 사업이 효과를 내고 있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 부산, 중소벤처 승계 공백 해소 금융지원

민관 협력 200억 자금 조성 부산지역 민·관이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업 승계와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18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상공회의소, 기술보증기금, BNK부산은행 등과 부산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한 인수합병(M&A)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통해 기업 승계 공백을 완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협약 참여기관들은 총 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기관별로는 시는 2.0%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부산상공회의소는 관내 기업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담당

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보증을, BNK부산은행은 특별 출연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기업당 대출은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며, 부산시의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 1.5%인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확대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로,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기업이 자금 운용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한편 부산시는 올해 중등 분쟁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지역 기업의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전국 최대 규모인 총 1조3680억원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 충남, 부석사 금동관음상 복원 불상 공개

서산 부석사서 복원 불상 봉안식 700년 세월을 건너온 고려의 미소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다. 충남도가 일본에 있는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정밀 복원한 불상을 공개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충남도는 지난 17일 서산 부석사에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복원 불상 봉안식을 열고, 원본과 동일한 성분과 전통 기법으로 제작한 복원 불상을 일반에 공개했다. 이번 복원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이일본 쓰시마 사찰 간논지(觀音寺)의 공식 복제 허가와 일본 기업이 제공한 3차원(3D) 스캔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진했다. 나가사키현 지정문화재 복제 허가와 국가유산청의 분석자료 협조도 함께 이뤄졌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원래 서산 부석사 소장으로 알려졌으나 고려 말 왜구 약탈 과정에서 일본으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일본 간논지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쓰시마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2012년 10월 국내로 밀반입됐다 같은 해 12월 경찰이 절도단을 검거하면서 압수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보관됐다. 이후 대한불교조계종의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과 부석사의 불상 인도 청구 소송 등이 이어지며 10여 년간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일본 반환이 결정되면서 부석사 측은 지난해 불상을 100일간 봉안해 친견법회를 진행한 뒤 반환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한일 관계자 협의를 통해 성사됐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 경남, 985억 규모 합정 MRO 생태계 구축

방사청 국비 공모사업 선정 경남도는 방위사업청 주관 '2026년 방산혁신클러스터 합정 MRO' 국비 지원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부산, 울산, 전남과 함께 2030년까지 5년간 국비 245억, 지방비 245억 등 총 490억원을 투입해 국내외 합정 MRO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및 MRO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조선소 및 기자재업체 대상 기술 개발, 보안 인증, 수출 지원 등에 협력한다. 시도별 사업비 규모는 경남 160억원, 부산 100억원, 울산 150억원, 전남 80억원이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도는 '합정 MRO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합정 MRO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단을 운영하고, 8개 기술개발 과제와 20건의 보안인증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내 62개 기업의 수출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한편 경남·부산·울산·전남 4개 광역자치체 컨소시엄 대표 지자체 역할을 맡게 된다. 지난 3월 선정된 산업통상부 주관 '합정 MRO 사업(495억원)'과 연계해 총 985억원 규모 재원을 바탕으로 합정 건조부터 유지·보수까지의 전주기적 지원 생태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 포항시 후쿠야마 축제서 교류 확대

포항시는 일본 자매도시인 후쿠야마에서 열린 '제59회 후쿠야마 장미축제'에 축하사절단을 파견하고 양 도시 간 우호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후쿠야마 장미축제는 매년 백만 송이 장미로 도시 전역을 꾸미는 지역 대표 축제로 문화와 관광을 상징하는 행사다. 이번 축제에는 장상길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포항시 대표단이 참가해 지난 16일과 17일 열린 개막식과 거리 퍼레이드, 각종 문화행사에 함께했다. 포항시는 현지에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주요 관광지와 대표 먹거리를 소개하고 해양관광도시 포항의 매력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 경주시 청년 만남지원 참가자 모집

경주시는 청년 미혼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만남지원사업 '청춘동아리, 두근두근 설렘의 시작 프로젝트' 참가자를 오는 6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성과의 교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들에게 취미와 체험활동을 매개로 한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참가자 모집 이후 6월 중 전문 결혼 컨설턴트와 함께하는 1박 2일 커플 매칭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